아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요?

```
x = 5
y = x
y = 3
print(x)
print(y)
```

첫 번째 줄에서는 정수 5 가 변수 x 에 지정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x 의 값이 현재 5 이기 때문에, 정수 5 가 변수 y 에 지정됩니다. 세 번째 줄에서는 y의 값이 3 으로 바뀝니다. 따라서 이를 실행하면 5 와 3 이 차례로 출력됩니다.

## 엘리어싱 (Aliasing)

그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까요?

```
x = [2, 3, 5, 7, 11]
y = x
y[2] = 4
print(x)
print(y)

[2, 3, 4, 7, 11]
[2, 3, 4, 7, 11]
```

앞서 본 변수의 예처럼  $x \in [2, 3, 5, 7, 11]$  이 나오고,  $y \in [2, 3, 4, 7, 11]$  이 나올줄 알았는 데, 결과가 예상과 다르죠? y의 원소만 바꾸었을 뿐인데, 왜 x와 y가 똑같이 [2, 3, 4, 7, 11] 로 변했을까요?

엘리어싱(Aliasing)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코드의 첫 번째 줄에서는 [2, 3, 5, 7, 11] 리스트에 x라는 이름표를 달아줍니다. 두 번째 줄에서 y = x라는 명령에 의해, 그 같은 리스트에 y라는 이름표를 달아줍니다. 세 번째 줄에서 리스트 y의 인덱스 2의 값을 4로 바꿔주면, 리스트는 [2, 3, 4, 7, 11]이 됩니다.

그런데 바뀐 [2, 3, 4, 7, 11] 이라는 리스트가 y 라는 이름표 뿐만 아니라, x 라는 이름표도 갖고 있었죠? 그래서 x 와 y를 출력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, 모두 같은 [2, 3, 4, 7, 11] 이 출력되는 것입니다. 두 변수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, 사실 같은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리스트가 출력된거죠. y는 x의 Alias(가명)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

## 리스트 보사

코드잇

하지만 간혹 엘리어싱을 이용하지 않고 리스트의 원본을 그대로 둔 채, 리스트의 복사본만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즉 x 라는 원본의 리스트는 그대로 둔 채, y 리스트의 값만 바꾸고 싶은 경우. 이럴 때는 lis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. list 함수는 원본을 복사해서 새로운 공간에 붙여넣고, 그 새로운 공간의 리스트를 리턴시켜줍니다.

x = [2, 3, 5, 7, 11]
y = list(x)
y[2] = 4
print(x)
print(y)

[2, 3, 5, 7, 11] [2, 3, 4, 7, 11]

첫 번째 줄에서 [2, 3, 5, 7, 11]을 가진 리스트에 x 라는 이름표가 달립니다. 두 번째 줄에서 y = list(x)라는 명령에 의해, x 리스트의 복사본이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지고 그 복사본에 y 라는 이름표가 달립니다. 즉 x 와 y의 리스트는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거죠.

따라서 세 번째 줄에서 y 리스트의 인덱스 2의 값을 바꾸는 행위는, x 리스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이로써 x와 y를 출력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, 각각 [2, 3, 5, 7, 11] 과 [2, 3, 4, 7, 11] 이 출력되는 것입니다.

✔ 수업을 완료하셨으면 체크해주세요.

♀♀ 수강생 Q&A 보기

assignment\_id=121&sort\_by=popular) (/questions/new?

assignment\_id=121&op1=%ED%94%84%EB%A1%9C%EA%B7%

이전 강의 (/assignments/120) Aliasing